



자동차 ISC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축사

전기·수소차로 변모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인프라 구축과 고용 안정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자동차ISC)가 최근 신설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ISC 출범식을 열고, 최근 자동차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시급해진 새 미래차 인력 육성과 재직자 직무 전환 서포트에 나섰다.





단체사진

이는 미래차 제조의 핵심 기술을 갖춘 인력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기존의 엔진, 동력기관 등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기존의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나 정비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에 기인한다.



현판식

실제 고용노동부는 엔진, 변속기 등 부품 수요가 줄면서 부품기업 4185개소의 노동자 10만 8천여명과 엔진오일, 필터 등 소모품 사용이 감소해 정비업계 3만 6247개소의 9만 6천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신차 판매 규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지난해 2.8%(5만 2천대)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18.3%(33만대), 2030년에는 33.3%(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ISC는 우선 대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향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의 협회·단체가 사업에 참여한다.

이날 참석한 박학진 고용부 차관은 자동차 ISC가 미래차 시대의 중심축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에 걸맞게 미래차 인력양성과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들의 고용유지, 재취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주문했다.



